

한편의 노래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새로 창작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 노래는 새세대 청년들이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보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에 앞장서나가도록 고무하는 좋은 노래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그이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되새겨졌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

이렇듯 백두산을 혁명의 교정으로 여기시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청년들뿐 아니라 천만대중모두가 즐겨불러야 할 좋은 노래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혁명의 성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을 그려보게 될것이며 백두산의 기상과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가르치심도 주신것이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오늘도 백두산으로 끝없이 오르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승리만을 펼쳐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담긴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힘차게 부르며.